



박소현의 섹.시.토.크

에너지를 얻는 사람, 에너지를 잃는 사람

J씨네 부부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잠자리를 갖는다. 결혼한 지 삼 년 차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애가 없어 일주일에 두 번이라는 평균을 기기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남편이 세 살 연하라는 이유만으로, J는 지난 3년 내내 친구들로부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야 했다.

“젊은 남자랑 사니까 좋지? 얼마나 힘이 넘쳐 날까?”

“아직 삼십대 초반아니 하루에 세 번은 거뜬 할거야.”

잠자리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으레 변칙쇠와 걸친한 용녀 보도가 놀라 대기 일쑤였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일주일에 두 번이나마 하는 것도 순전히 K의 굳은 의지 때문이었을 뿐 남편의 활력과는 상관이 없었다. 아니, 세 살 연하의 남편은 일주일의 두 번이라는 횟수 자체를 이미 험겨워하는 중이었다.

섹스가 끝나면 J부부의 침실에서는 늘 똑같은 풍경이 연출되었다. 일단 남편이 침대 위로 고꾸라지듯 쓰러지며 가쁜 숨을 내쉰다. J역시 가쁜 숨을 내쉬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J의 표정이 꾀상기되어 있는 것에 비해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는 쪽에 가까웠다. 남편은 그대로 누워 한참을 미동도 하지 못한다. 좀 쓰였다는 J의 말에 겨우 팔을 뻗어 휴지 몇 장을 손에 쥐고는 자기 몸만 대충 수습하고 바로 잠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 밤낮에 상관없이 섹스 후에는 꽂아떨어

지는 것이 필수코스였다.

반면 J는 발딱 일어나 샤워를 하러 갔다. 샤워가 끝난 뒤에는 이 방 저 방을 훑적고 다니며 미뤄둔 집안일을 해냈다. 회사에서 갖고온 일거리 를 훨씬 때도 있었다. 밥과 낮에 상관없이 섹스 후에는 그렇게 힘이 뺏치는 듯 행동하는 것이 J의 특징이었다.



만 있어, 알았지?” “나야 좋지.”

속으로 ‘얼마나 힘썼다고 유세는?’ 하고 생각했던 J는 정말 그날 이후부터 섹스를 주도하기 위해 온몸을 불태웠다. 회사에서 갖고온 일거리 를 훨씬 때도 있었다. 밥과 낮에 상관없이 섹스 후에는 그렇게 힘이 뺏치는 듯 행동하는 것이 J의 특징이었다.

그럼에도 참 희한하게도, 섹스 후 두 사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만히 누워 크게 힘을 안 쓴 남편은, 평소보다는 조금 기운이 남아

“옹녀가 에너지 넘치지

영화 속 장면 생각 안나?

이 남자랑 끝내고 나서

바로 저 남자랑 하잖아”

있는 모습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생생할 정도는 아니었고, 열심히 잠자리를 주도한 J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너는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힘들게 없는거야.”

“나도 힘쓰거든?”

“그 정도 가지고 뭘 힘썼다고.”

이런 유치한 대화가 오가는 것이 지겨워진 J는 어느 날 남편에게 선언했다.

“앞으로 내가 힘쓸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누워

이야,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살지.”

J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원래 섹스를 하면 에너지를 얻는 사람과 에너지를 잃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남편은 지지 않고 되받아쳤다.

“그래, 옹녀가 바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야. 영화 속 장면들 생각 안나? 이 남자랑 끝나고 나서 바로 저 남자랑 하고 그러잖아, 그게 다 넘치는 에너지 덕분 아니겠어?”

듣다 보니 슬슬 부아가 치밀어 오르는 말이었다.

“당신 말은, 에너지를 얻는 사람은 다 잠재적 바람둥이라는 소리야? 나도 옹녀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게 될 거라는 소리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J의 격한 반응에 남편의 목소리가 찾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불만이 도사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나한테서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해. 내가 늙어서 기력 없어지면 다 당신 탓이니까.”

슬그머니 돌아서 눕는 품에 벌써 기력 다 떨어진 어느 중년 남자의 모습이 숨어 있다. 그냥 편히 미안한 마음에 다가가서 한마디 건네었다.

“에너지라는 게 왔다 앓다 하는 거야. 당신이 내 에너지를 뺏어갈 날도 있을 걸?”

위로라고 견었지만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았다. 남편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몰라. 오늘 저녁엔 장어나 좀 구워줘.”

검색결정 키워드

검색

‘PD수첩’까지 추적 나선 ‘허경영 신드롬’

‘신혼부부에게 1억원 지급’, ‘국회의원의 무급화’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대선 깜짝 스타’에 등극했던 경제공화당 허경영 총재가 이번 주에는 인터넷 세상을 점령했다.

아이유 430, 새마을 운동의 창시자, 축지법에 공중부양도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오면서 ‘허경영 신드롬’이 절정에 달해 급기야 ‘PD수첩’이 허 총재에 대한 의혹 추적에 나섰다.

앞서 케이블 TV에서도 허 총재의 자택을 방문해 축지법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을 풀고, 네이튠은 거침없는 언변으로 천연덕스럽게 제작자들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그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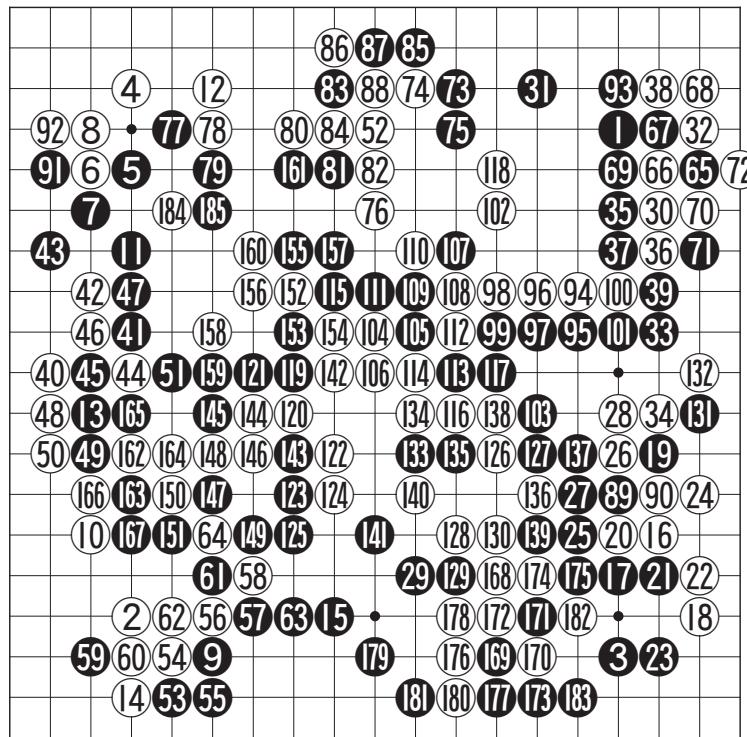
15일에는 공중파 방송까지 타면서 인터넷 상에는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부패된 정치판에서 속이라도 시원하게 해줘 인기를 끌었었던 것이다” “대선이 장난도 아니고 국민을 우롱하

는 정치인의 이면을 잘 꼬집었다” 등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그의 미니 흡피에는 하루 3만 명에 가까운 네이튠이 방문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당신이 진정한 대통령입니다’, ‘빨상 아줌마와 대결을 펼쳐 달리’, ‘대학 발표 났는데 후보 41번이에요. 당신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니 대학 좀 불게 해주세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허경영 총재의 자가용.



제15회 KBC사장배

중고등부
결승전

흑, 빛나는 우승 총보(1~185)

白 김근홍 4단
(전자공고 1)
Black 김기수 4단
(문성종 1)

결국 185수 까지 가는 접전 끝에

문성종학교 1학년인 강지수군이 전자공고 1학년 김근홍군을 통쾌한 불계

승으로 물리치고 우승컵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강지수군의 우승은 제일 저학년으로 기록상 같은 중·고등학교의 수많은 선배들을 물리치고 이뤄낸 것이다. 더욱이 빛이 난다. 사실 많은 실전경험이 요구되는 바둑에서 중학교 1학년생이 고등학생들이 태반인 강자를 물리치고 우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만큼 강지수군의 재능과 실력이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내용도 강지수군이 상당히 좋았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하설위원>

결승무대에 서면 긴장하여 승부를 서두르기가 심상인데 침착한 반면운영

으로 오히려 김근홍군이 먼저 도발하게 만들고 있다. 김근홍군의 패인을

들자면 좌변에 40의 침입을 서두른

데 있다. 이 수로는 앞에서도 설명

한 바와 같이 하면 먼저 침투해야

만 했다. 좌변에서 50까지 실리를 얻

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흑이 두터워져 이후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백 94로 들어다 본 수도 대악수로

이후 강지수군은 이 백을 착실하게

공략하여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 냈다. 흑 185 수 끝. 불계승.

내용도 강지수군이 상당히 좋았다.

바둑소식

국내 최대 기전 하이원배 개막

우승 상금 1억원의 국내 최대 기전인 하이원배 명인전이 17일 개막했다.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이세돌 9단, 준우승 조한승 9단, 3위 목진석 9단이 시드 출전했고, 219명이 예선을 거쳐 7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린다.

이창호·박영훈·최철한 9단 등이 예선 1회전부터 출전, 예선전 자체가 본선 못지않은 난타전이 예상된다.

본선은 시드 출전자와 진출자 10명이 풀리그전을 통해 1, 2위를 선발, 결승 5번 기록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이번 대회는 제한시간 각각 2시간, 초읽기 60초 3회, 덤 6집 반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리빙 센스

감자 껍질로 물때 제거하기

매일 사용하는 주전자와 물병에는 금세 물때가 생기곤 합니다. 감자껍질만 있으면 물때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전자

수세미를 이용해서 주전자나 물병에 생긴 물때를 닦게 되면 흡집이 생기고 뾰족뾰득 깨끗하게 물때가 제거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주전자 안에 물을 가득 붓고 그 안에 감자껍질을 넣고 삶아주면 깨끗해진답니다.

▲싱크대

먼저 증기세제를 수세미에 묻혀 가볍게 닦아주세요. 그 다음 감자는 물론 파·마늘 등 각종 야채를 이용해 야채의 절임 단면으로 싱크대를 닦아주면 깔끔해집니다.

▲유리잔

감자껍질을 넣고 물을 가득 채운 뒤 입구를 막고 상하로 흔들어 닦아주세요. 유리컵에 생긴 기름 얼룩은 레몬에 소금을 묻혀 닦아주면 말끔히 지워집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8일(음 12월 11일丁巳)

子 36년생 흥망의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48년생 대고는 없으나 편지도 않다. 60년생 문서는 쥐었으나 실리는 없다. 72년생 큰 계획으로 허락해 더욱 일은 없으리다. 84년생 주위에서 도와주는 혼례자는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17, 45

丑 37년생 규모를 축소하고 내실을 기하라. 49년생 체면보다는 실리가 우선이니 실리를 취하라. 61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허락하라. 73년생 타인의 시기가 괴롭히니 조심해라. 85년생 소심한 행동이 판단에 걸린다.
행운의 숫자 : 03, 36

寅 38년생 사소한 일로 관계에 가는 수도 보이니 자중이 최선이다. 50년생 화해보다 더 좋은 해결은 없다. 62년생 남이 시비를 걸어온다. 74년생 생활을 그르치니 천천히 진행하면 잘못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05, 38

卯 39년생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고 이웃에게 배움이다. 51년생 꾸준한 노력의 대가가 보이려는 시기다. 63년생 꾸준히 98%는 수확할 수 있는 문제다. 75년생 실상의 안정이 모든 일의 삶마리니 수확을 하루에 허락해 보내라.
행운의 숫자 : 14, 29

辰 40년생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라. 52년생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가족에게 전하라. 64년생 과거의 문서가 속을 털어주니 자세하게 살펴보라. 76년생 이웃과 좋은 일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되어 돌아온다.
행운의 숫자 : 09, 35

巳 41년생 외형을 줄이고 실속을 위주로 진행하라. 53년생 서로가 이해하면 서로가 특히 된다. 65년생 내일을 위해서 힘을 아끼면 좋다. 77년생 가족은 최고의 협력자니 가족을 사랑으로 보살펴라.
행운의 숫자 : 01, 31

午 42년생 새로운 투자는 내일로 미루고 현금을 짚어야 한다. 54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니 매사에 조심하라. 66년생 재수가 불평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78년생 애인과 사랑싸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1, 37

未 43년생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하니 서로로서 이해해라. 55년생 길한 일과 흉한 일이 동시에 있다. 67년생 직장과 아내사이에 불편기가 발생한다. 79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 08, 34

申 44년생 멀리서 협조자가 나타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56년생 문단속을 잘하여 마음이 편하다. 68년생 마음은 갈팡질팡 짐작도 못할 수니 신성을 가다듬고 지내라. 80년생 힘을 막고 지내면 마음을 편하다.
행운의 숫자 : 19, 44

酉 45년생 실리는 적고 할 일은 많으니 선택을 잘하라. 57년생 끝까지 진행해도 실상이 쉽지 않으나 좋은 일은 있다. 69년생 의형은 줄이고 실리는 들려야 산다. 81년생 오늘은 즐거워지니 무엇이 부러우라.
행운의 숫자 : 04, 43

戌 46년생 직업 재물에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니 각별한주의가 요구된다. 58년생 흥과 복이 반반사니 심신을 다스려라. 70년생 자선민한 하자마자 복병이 있다. 82년생 대화로 노력하면 예정으로 변화하리.
행운의 숫자 : 11, 40

亥 47년생 간성이 자신의 길을 어지럽히니 증증하게 천하하라. 59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진행은 지연된다. 71년생 자신의 밭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좋은 길이 보인다. 83년생 좋은 매니